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1920년대에서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영동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김 영 주

Dept. of Women's Liberal Art, Youngdong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 : Kim, Young-Joo.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연구의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ther's role of childrearing appeared in Korean central daily newspapers.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content analysis of the articles related with childrearing in Dong-a ilbo and Cho-seun ilbo from 1920's to 1970's.

It is found that the articles dealt with childrearing were concerned on childrearing practices conformable with social change for industrial capitalization during twentieth century of Korea. These articles dealt with problems of practices in nurturing, teaching, diciplining and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institutional education of school. It is found that the father's role of childrearing were gender-nonspecific .

I. 문제의 제기

최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 대중적 관심이 상당히 증가되어 왔다(김 영주, 1993). 최근에 제작

되는 헐리우드의 마이 라이프나 아빠 만들기, 국내의 미스터 맘마나 닥터 붕과 같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등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아동양육의 모든 측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과 같은 서구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오랫동안 담당해 오던 생산과 소비활동중 생산활동은 대형화된 공장으로 移讓되었고, 가족은 자녀양육과 소비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바뀌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었다.

따라서 현대 가족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소비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남성의 역할이 사회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반하여 여성의 역할은 가정안에서 남성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있게 되었다.

또한 현대 가족은 자녀양육의 강조와 모성과 부성으로서 겪어야 할 경험에 관심을 표명한다. 특히 성별에 의한 분업이 강조되어져 자녀 양육의 책임은 대체로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었다(Anderson, 1983: 이 동원 김미숙 역, (1987)에서 재인용).

여성의 취업은 20세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특성이 되고 있다. 여성 취업의 초기에는 미혼 여성이 여성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기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육 선화, 1993). 기혼 여성이 취업할 경우 어머니 역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높은 편이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데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육선화, 1993). 이러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갈등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머니 역할의 변화를 가져와 아버지 역할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LaRossa(1988)는 20세기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어머니들이 가정외의 노동에 참여했을 때는 아버지 역할이 남성 부양자의 측면에서 정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수의 어머니가 임금 노동에 참여하게 되자 출산율은 저하되고 아버지는 양육자로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혼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남성/가계부양자, 여성/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수행자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완화되었다. 여성도 가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었고, 남성도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어머니에 비교해 볼 때 부모 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수행하고 있었다(송 헤림, 1988; Berk, 1985; U.S. Bureau of the Census, 1991). 그리고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만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Brayfield, 1993).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볼 때 감정적으로 덜 몰입하고 있었고 기계적이었다(M.P. Atkinson & S.P. Blackwelder,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활동이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Lamb, 1985; Leupow, 1980; Pruett, 1987; Robinson & Barret, 1986). 또한 많은 연구자들(Dubbert, 1979; Ehrenreich, 1983; Rossi, 1984; Lamb, 1987)이 아버지 역할이 부양자 역할에서 양육자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두가지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아버지 역할이란 어머니 역할과는 다른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자녀에게 어머니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수행했던 자녀 양육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며 이는 아버지 역할이라기 보다는 부모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로서 동일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것이다. Day와 Mackey(1986)는 이러한 아버지 역할이 유능한 부모 역할로의 변화라고 예측하였다.

John Demos는 아버지됨이란 문화의 발명품이라고 하였다(Lamb, 1987). 아버지 역할의 양식과 질은 각 시대와 문화가 제공하는 제약, 영향력, 기회에 따라 다르다. 前述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서구 사회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 역사적 상황을 겪어온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사회 이후 근대 사회로 전환해 가는 도정에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20-1980년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나타난 아동 양육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기능상의 특징은 정보, 사상, 관념, 문화 등 인식의 생산과 전파라는 측면을 지닌다(이 준우, 1987). 특히 신문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소수의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관심있고 다양하며 시의적이며 발행이 계속된다는 점이다(차배근, 1991). 이러한 신문을 도구로 하여 한국 사회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추이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1920년대에서 1980년까지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화와 그에 따른 제반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식민지 수탈로서 보다 높은 초과이윤의 실현을 위한 일본 독점 자본의 요구에 의한 식민지적 자본주의화 단계(박 현채, 1985)인 1920년에서 1940년까지가 한 단계이며, 1945년 해방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까지를 두번째 단계로, 1960-1980년까지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입각한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세번째 단계로 잡았다.

1980년대 이후는 한국의 자본주의화가 구조적인 불안정기에 들어서서 균형 회복을 위한 조정기,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기에 들어 있는 세계자본주의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는 의미(박 현채, 1985)에서 아직 자본주의화 과정의 한 단계로서 뚜렷하게 정의내릴 수 없는 시점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이행되는 각 전개 단계에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규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나라의 아버지 역할이 변화한 과정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아버지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먼저 1920년에서 1980년까지의 동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신문에 나타난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에서 아동양육을 수행하는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할

주체자로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기왕에 수행되어져 왔던 어머니의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의 역할 수행 주체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20년에서 1980년까지 동아 조선일보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 ① 기사에서 제시된 아동양육의 역할주체는 어떠한가?
- ② 기사에서 제시된 아동양육의 주체는 1920-30년대, 1940-1950년대, 1960-1970년대의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 ③ 기사에서 제시된 아동양육의 주체는 영역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II. 관련 연구의 고찰

1. 전통 사회의 아버지 역할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됨이라든가 혹은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단지 남겨진 문헌을 통하여 그 시기의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김 영주(1993)는 전통적인 아버지가 일제시대 이후, 해방과 전쟁, 분단속에서 어떻게 재형성되어 현대의 아버지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30-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술회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지주요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심받지 않았다. 또한 분석대상자들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훈육과 통제도 직접 꾸중하거나 혼내주기 보다는 그냥 두어 깨우치게 함으로써 위엄과 권위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산에 참여하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아내와 자녀만이 아닌 직계 가족내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고 감독하

는 역할을 하였다(최 재석, 1982).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출현은 사실상 1960년대 산업화 이후부터이다. 이와 맞물려 아버지의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는 취업모의 증가도 동시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도 자녀 양육과 같은 표현적 역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100년에 걸쳐 일어난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는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 사이에서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 역할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인가에 대한 합의점도 없는 상태이다.

2. 현대 사회의 아버지 역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등으로 가족의 구조적 형태와 기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것은 직장에서의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인한 가족내의 아버지 부재와 무관심, 가족 분열에 기인한 가족원 나뉠대로의 관심의 차이, 지식의 폭증과 급격한 변화, 성역할의 변화, 이혼등이 원인이 된다(조 복희 신화용, 1990).

최근 한국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에 부수되어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아버지 자신의 변인(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등)과 자녀의 변인(연령, 성별등), 가족 변인(어머니의 취업여부)을 추출하여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둘째 아버지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즉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로 大別할 수 있다.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김 태련, 이 은화, 이 동원(1972)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10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 바람직한 환경조성의 역할로서 물적, 경제적인 환경조성의 역할과 인적 환경조성의 역할, 건강 관리 및 諸 위생문제에 대한 역할, 기본적 훈육을 위한 역할, 좋은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역할, 유아의 능력을 계

발하는 역할,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 유아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하여 자신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중요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역할이다. 이 중에서 어머니가 기대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먼저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특히 물적 경제적 환경조성이 인적 환경조성보다 강조되었으며 둘째는 대인관계의 역할을 들고 있다. 물적 환경 조성이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분 미옥(1983)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경제적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대되고 있었고 또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 비영(1985)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물적 인적 환경조성의 역할에 관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과 애정 및 관심을 갖는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방 은령(1986)의 연구에서 불 때, 인지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위생관리, 건강관리, 물질제공, 정서관리, 보호관리의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높게 지니고 있었고 신체발달영역에서는 아버지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규범과 가치관, 생존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의식이 아버지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몇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로 물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아버지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결정하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은 아버지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수입이다. 만 6,8,10세의 남녀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알아 본 위 영희(197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이 높은 경우 신체 발달이나 성에 대한 지도 등 성 교육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유의한 지식을 전해주는 비율이 높았고,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들은 아동에게 유의한 지식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공부방 마련등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녀에게 가사분담 및 협조할 것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옥엽(1981)의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학력, 수입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수행 관계를 다루었는데 능력개발의 역할은 아버지의 학력과만 관계가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훈육이 잘 이루어졌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학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옥자(1983)의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연령, 학력, 직업과 연관성이 있었고 김 미영(1985)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버지의 역할 수행도는 아버지의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은 또한 가족의 형태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미란(1985)의 연구에서 보면 핵가족의 아버지가 확대가족의 아버지보다 역할 수행이 더 높다고 밝혀졌다. 또 취업모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관해 연구한 안 은자(1983)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지도, 정서지도, 일상생활지도에서 아버지가 높은 역할 수행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종합하여 보면 아버지의 역할 수행은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족형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의적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서 현대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킨 아버지일수록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 외에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잘 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핵가족이거나 취업모 가정일 경우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가족의 적응방식이라고 보여진다.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서 고 경자(1966)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민주적 태도는 남·녀 아동의 활동성, 지배성, 정서적 안정성 및 사회성과 깊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한 종혜(1980)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버지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애정적인 태도와 관심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회자, 정 영숙, 1980; 이 옥자, 1983). 부모의 성 역할 유형과 자녀양육에서의 역할 참여 및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 회숙(1984)의 연구에서 볼 때,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양성적인 아버지가 남성적 유형의 아버지보다 일상적인 보살핌의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나타났다. 조 복희(1987)도 자녀 양육에 있어 性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단지 임신과 수유로 보고 그 밖의 부모로서의 모든 역할을 공유하는 동등한 부모노릇을 하는 아버지 개념으로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아버지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 않게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 역할과 다른 어떤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역할을 공유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 온다.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의 주체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부각되는지 신문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920년-1980년까지 신문에 나타난 아동 양육기사의 주체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택했다. 내용분석에 있어 객관성과 체계성의 확보는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차 배근, 1991).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20년-1980년까지 동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중에서 사실 보도기사와 광고를 제외한 내용중에서 가정란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한 아동양육기사는 총 3,870건으로 이것은 육아 수기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특히 동아 조선일보의 두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본격적인 근대신문으로 1920년 창간이후 정간이나 일제 말기의 폐간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1920년 창간이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된 1940년 8월 10일까지를 1920-1930년대로 하여 분석의 제 1시기로, 해방후 1945년 11월 23일 조선일보가 복간되고 같은 해 12월 1일에 동아일보가 복간된 후부터 1960년 12월 말일까지를 1940년-1950년대로 하여 분석의 제 2시기로, 1961년부터 1980년 12월 말일까지를 1960-1970년대로 하여 분석의 제 3시기로 잡았다.

(2) 분석유목선정: 본 연구에서는 베렐슨(Berelson, 1952)이 제시한 분석 유목중에 주제분석과 행위자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제 분석 유목을 위하여 Nye(1976), Duvall(1979), Gilbert & Hanson(1983), 유 안진(199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신 출산유목, 보육유목, 훈육유목, 교육유목, 상담유목, 학교제도연계유목, 일반유목의 7개의 주제분류유목을 선정하였다.

임신 출산 유목은 태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출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임신에서 출생까지의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보육 유목은 신체적 심리적 기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 유목은 아동의 제반 측면, 즉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훈육 유목은 아동에게 개인, 가족,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규칙, 규범, 가치등을 내면화 시켜 정신적 행동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의도적 활동을 의미한다. 상담 유목은 자녀의 발달과정 중 결정적 시기에 야기되는 문제나 갈등에 관해 조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제도 연계 유목은 아동을 일반 사회제도가나 시설과 연결시키는 교량적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 유목은 여러 유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행위자 분석은 메세지에서 제시된 어떤 행위의 행위자를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차 배근, 1991)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 관련 기사에서 양육의 행위 주체로서 어떤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범주 설정 요구의 충족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범주를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김 경동, 이 운죽, 1986)고 보아 임신 출산 유목을 제외한 전체 기사를 먼저 검토하여 행위 주체의 유목을 추출 설정한 연후에 이어서 분석하였다. 신문기사에서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이 언급되었고, 그 밖에 앞의 유목에 속하지 않는 대상, 예를 들어 어른, 할머니 등과 같은 대상이 언급된 경우와 그밖에 행위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기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 기타, 명시 안됨등으로 행위 주체를 분류한 연후에 결과 분석에서는 행위주체가 명시 안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3) 분석 단위 선정: 분석 단위는 기사(Item)이며 1920-30년대는 2,157건, 1940-1950년대는 322건, 1960-70년대는 1,391건으로 총 3,870건이 분석되었다. 본 내용 분석은 먼저 신문 기사중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를 추출해 내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추출된 아동양육과 관계되는 기사를 분석 유목에 의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 유목에 의하여 분류된 기사는 기사가 실린 날짜, 역할 주체, 양육의 대상(아들, 딸, 자녀...), 양육 대상의 연령, 그 기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난으로 구성된 내용분석지를 가지고 분석되었다.

신뢰로운 분류를 위해 석사이상의 전공자 2인이 몇 건의 결본 사례를 가지고 사전 토의를 통하여 분류기준을 확정된 후에 작업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는 각 분석 유목 및 하위 영역별로 해당하는 기사 건수의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IV.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1. 전체 개관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동아 조선일보에 실린 아동양육 관련 기사를 주제 유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아동 양육 관련 기사 주제 유목 및 하위 영역별 빈도

주제유목	계(%)*
임신 출산	566(14.6%)
보육	1,451(37.5%)
교육	518(13.4%)
훈육	400(10.3%)
상답	68(1.8%)
사회연계	697(18.0%)
일반	170(4.4%)
총계	3,870(100)

*는 전체에서 각 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총 3,870건 중에서 보육 주제는 1,451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연계 주제 유목이 697건(18.0%), 임신 출산 주제 유목이 566건(14.6%), 교육 주제 유목이 518건(13.4%), 훈육 주제 유목이 400건(10.3%), 일반 유목이 170건(4.4%), 상답 주제 유목이 68건(1.8%)의 순서였다.

2. 전반적인 아동양육의 행위 주체

전반적인 양육 행위의 주체에 관한 분포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가장 많이 나타난 대상은 어머니로, 분석된 기사

의 43.9%이며(1,142건)이며, 부모가 33.1%(861건), 가정이 12.1%(315건), 부형이 5.5%(142건), 아버지는 0.5(12건), 기타가 5.0%(129건)의 순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 양육의 역할 수행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아버지 역할의 빈도가 거의 없고 부모, 혹은 부형이 다소 행위 주체로 지목되고 있었다. 父兄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 직계가족하에서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가 부재시엔 만형이 그 자리를 대신 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형이란 행위 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에서의 권위가 부부에게 있게 됨에 따라 부모는 행위 주체로서 시기가 지남에 따라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기별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

시기별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에 관한 분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1920-1930년대에는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로 어머니가 48.1%(695건), 부모가 26.2%(379건), 가정이 15.0%(217건), 부형이 6.3%(91건), 기타 4.2%(61건), 아버지가 0.1%(2건)이었다. 주로 어머니가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자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가사노동 및 아동 양육 수행자, 남성/가계부양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리에스(Aries, 1962), 헌트(Hunt, 1970), 케센(Kessen, 1979)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행위 주체로 지목되는 추세는 1920-30년대에 48.1%(695건)였던데서 1940-1950년대에는 49.8%(100건), 1960-1970년대에 36.3%(347

<표 2> 전반적인 양육 행위의 주체별 빈도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	기타	계
계	315	1,142	12	862	142	129	2,601
%	12.1%	43.9%	0.5%	33.1%	5.5%	5.0%	100%

〈표 3〉 시기별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

시기구분유목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	기타	계
1920-30년대 (%)**	217 (15.0)	695 (48.1)	2 (0.1)	379 (26.2)	91 (6.3)	61 (4.2)	1445 (100)
1940-50년대 (%)**	28 (13.9)	100 (49.8)	4 (2.0)	54 (26.9)	12 (6.0)	3 (1.5)	201 (100)
1960-70년대 (%)*	70 (7.3)	347 (36.3)	6 (0.6)	428 (44.8)	39 (4.1)	65 (6.8)	955 (100)
총 계 (%)***	315 (12.1)	1,142 (43.9)	12 (0.5)	861 (33.1)	142 (5.5)	129 (5.0)	2,601 (100)

* 행위주체가 명시안된 기사 703건은 제외.

** 시기별 각 행위 주체 유목의 백분율.

***전체에서 각 행위 주체 유목의 백분율.

건)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수행자, 남성/가계부양자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남녀간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 확대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역할 공유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버지가 행위 주체로 지목되는 비율은 1920-1930년대에 0.1%(2건)이었던데서 1940-1950년대에 2.0%(4건), 1960-1970년대에 0.6%(6건)으로 계속해서 아주 적은 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부모가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로 지목되는 비율은 1920-1930년대에 26.2%(379건)이었던데서 1940-1950년대에 26.9%(54건), 1960-1970년대에 44.8%(428건)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 이후에는 부모가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로서 어머니보다 더 많이 지목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아동 양육 역할 수행이 어머니의 일만이 아닌 부모의 일로서 지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 역할 이데올로기의 약화로 인해 가족내 역할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부부간의 역할 평등과 역할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특히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일상 생활에서 아동양육에 어머니와 같이 참여하도록 절실히 요구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역할과 대치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유 영주, 1984)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성적인(Gender nonspecific) 부모 역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아동 양육 행위 주체로서 부형은 1920-1930년대에 6.3%(91건), 1940-1950년대에 6.0%(123건), 1960-1970년대에 4.1%(39건)로 그 비율이 미미하나 마 점차 낮아지고 있어 아버지 長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권력관계를 내포하는 가부장제적 직계 가족 구조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역별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

임신과 출산 영역을 제외한 영역별 행위 주체 빈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1) 보육 주체 유목에서의 행위주체

보육 주체 유목에서의 행위 주체 빈도는 총 1,042건 가운데 어머니가 669건(64.2%)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213건(20.4%)이고, 가정어 104건(10.0%),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6건(0.6%), 3건(0.3%)이다. 시기별로 보아도 세 시기 모

(표 4) 시기구분에 따른 주제 유목별 행위 주체 빈도

주제	시기	가정	어머니	아버지	부모	부형	기타
보육	20-30년대(%)*	75(11.3)	443(67.0)	0(0.0)	103(15.6)	6(1.0)	34(5.1)
	40-50년대(%)*	10(15.6)	45(70.3)	0(0.0)	9(14.1)	0(0.0)	0(0.0)
	60-70년대(%)*	19(6.0)	181(57.10)	3(1.0)	101(31.9)	0(0.0)	13(4.1)
	계 1,042(%)**	04(10.0)	669(64.2)	3(0.3)	213(20.4)	6(0.6)	47(4.5)
교육	20-30년대(%)*	27(15.4)	67(38.2)	0(0.0)	65(37.1)	9(5.1)	7(4.0)
	40-50년대(%)*	5(11.9)	17(40.5)	0(0.0)	15(35.7)	4(9.5)	1(2.4)
	60-70년대(%)*	8(4.5)	59(33.0)	2(1.1)	94(52.5)	2(1.1)	14(7.8)
	계 396(%)**	40(10.1)	143(36.1)	2(0.5)	174(43.9)	15(3.8)	22(5.6)
훈육	20-30년대(%)*	28(13.1)	76(35.7)	0(0.0)	88(41.3)	12(5.6)	9(4.2)
	40-50년대(%)*	4(15.4)	5(19.2)	4(15.4)	13(50.0)	0(0.0)	0(0.0)
	60-70년대(%)*	13(10.7)	30(24.8)	0(0.0)	64(52.9)	5(4.1)	9(7.4)
	계 360(%)**	45(12.5)	111(30.8)	4(1.1)	165(45.8)	17(4.7)	18(5.0)
상담	20-30년대(%)*	1(2.5)	18(45.0)	0(0.0)	15(37.5)	5(12.5)	1(2.5)
	40-50년대(%)*	1(14.3)	1(14.3)	0(0.0)	5(71.5)	0(0.0)	0(0.0)
	60-70년대(%)*	0(0.0)	2(13.3)	0(0.0)	12(80.0)	1(6.7)	0(0.0)
	계 62(%)**	2(3.2)	21(33.9)	0(0.0)	32(51.6)	6(9.7)	1(1.6)
사회 연계	20-30년대(%)*	79(27.3)	71(24.6)	1(0.2)	79(27.3)	57(19.7)	2(1.0)
	40-50년대(%)*	6(13.0)	27(58.7)	0(0.0)	7(15.2)	6(13.0)	0(0.0)
	60-70년대(%)*	22(8.5)	64(24.7)	0(0.0)	124(47.9)	31(12.0)	18(7.0)
	계 594(%)**	107(18.0)	162(27.3)	1(0.2)	210(35.4)	94(15.8)	20(3.4)
일반	20-30년대(%)*	7(10.4)	20(29.9)	1(1.5)	29(43.3)	2(3.0)	8(11.9)
	40-50년대(%)*	2(12.5)	5(31.3)	0(0.0)	5(31.3)	2(12.5)	2(12.5)
	60-70년대(%)*	8(12.5)	11(17.2)	1(1.6)	33(51.6)	0(0.0)	11(17.2)
	계 147(%)**	17(11.6)	36(24.5)	2(1.4)	67(45.6)	4(2.7)	21(14.3)

* 주제 유목내에서 시기별 각 행위주체유목의 백분율

** 주제유목내에서 각 행위주체의 백분율

두 어머니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이 부모 가정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가까와질수록 어머니가 행위 주체로서 꼽히는 것이 줄고, 행위 주체로서 부모가 증가하여 1920-1930년대와 1960-1970년대를 비교해 볼 때 행위 주체로서 어머니는 67.0%에서 57.1%로 감소하고 있었고 부모는 15.6%에서 31.9%로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아버지는 행위 주체자로 세 시기중 단 3건이 보고되어 보육의 수행자로 아버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보육영역이 건강 위생관리, 정서적 보호, 발

육 일반에 관한 것으로 다른 교육이나 훈육영역과는 달리 일차적인 양육에 해당하여 어머니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으나 점차로 부모가 공유해야 하는 역할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교육 주제 유목

교육 주제 유목에서의 행위 주체는 총 396건 중에서 부모가 174건(43.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143건(36.1%), 가정이 40건(10.1%),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15건(3.8%), 2건(0.5%)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1920-1930년대와 1940-1950년대에는 어머니, 부모, 가정 순으로 나

타났으나 1960-1970년대에는 어머니 보다는 부모가 아동 교육 행위 주체로 더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아버지나 부형은 행위 주체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 영역의 행위 주체는 보육 영역에서 보다 더 많이 부모를 행위의 주체로 꼽고 있었다. 더 나아가 1960-1970년대에는 교육영역의 행위 주체로 부모가 어머니보다 더 많이 언급되었다.

1960-1970년대에는 정서 사회성 발달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33.6%), 그 다음은 지적 발달(26.0%)과 놀이지도(23.7%)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할 한 몇명이 가족에서의 자녀 발달, 특히 성격이나 정서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의 방법을 기사화하고 있다(신 양재, 김 영주, 1993). 앞서의 행위 주체에서 부모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추세와 같은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1960-1970년대 산업화에 따라 여성 취업이 늘어나 어머니가 취업하게 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분담이 요구되자 유아기 아동의 일차적인 보육 보다는 학령기 아동의 교육이 아버지가 분담할 수 있는 부모역할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아버지 역할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학습, 인지 학습, 성취동기 등의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 은화 외, 1993).

③ 훈육 주제 유목

훈육 주제 유목의 행위 주체는 총 360건 중에서 165건(45.8%)이 부모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어머니가 111건(30.8%), 가정이 45건(12.5%),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17건(4.7%), 4건(1.1%)으로 부모, 어머니, 가정의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는 전 시기에 걸쳐서 변함이 없지만 어머니가 행위 주체로 언급된 것은 1920-1930년대에서 후기로 갈수록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부모가 행위 주체로 꼽힌 것은 후기로 갈수록 빈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되지 않은 1920년대에서조차도 훈육 행위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내포한다.

훈육이란 대소변 가리기, 식습관, 자조적 생활 습관, 절약, 예절과 같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금지, 불량화 범죄화에 대한 금지와 같은 사회 규범의 내면화, 버릇 들이기, 자녀에 대한 이해등과 같은 훈육 방법등을 포함하는 것(신 양재, 김 영주, 1993)인데 교육 영역 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20년대부터 부모가 아동 양육의 행위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전통사회 유아교육에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라든가 사회 규범의 내면화는 7세 이후에 여아는 어머니에게서 기본 습관 형성과 가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을 배우고, 남아일 경우에는 아버지에게서 인사법, 존수 세기, 호칭과 미래의 가부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유 안진, 1990)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④ 상담 주제 유목

상담 주제 유목의 행위 주체는 분석된 총 62건 중에서 32건(51.6%)가 부모였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21건(33.9%), 부형이 6건(9.7%), 가정이 2건(3.2%)로 아버지는 단 1건도 상담영역의 행위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시기별로 볼 때는 1920-1930년대에는 어머니가 45%(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로 37.5%(15건)였으며 그 다음이 부형으로 12.5%(5건)였는데 비해 1940-1950년대에는 총 기사 건수가 7건으로 적긴 하지만 부모가 71.5%(5건), 어머니와 가정이 14.3%(각 1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60-1970년에 더 두드러져 부모가 80%(12건), 어머니가 13.3%(2건), 부형이 6.7%(1건)이 되었다.

상담유목은 사춘기 변화 적응, 이성교제, 진로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유목중 기사 건수가 가장 적다. 이는 유아나 아동기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청소년기에는 가정을 넘어 학교,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동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아나 아동기에 비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역할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신 양재, 김 영주,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영역도 어머니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역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추세는 보육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⑤ 사회연계 주제 유목

사회연계 주제 유목은 총 594건중에서 부모가 210건(3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162건(27.3%), 가정이 107건(18.0%),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94건(15.8%), 1건(0.2%)였다. 시기별로는 1920-1930년대는 부모, 가정, 어머니의 순서이나 빈도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1940-1950년대는 어머니, 부모, 부형의 순서로 나타나고 1960-1970년대에는 부모, 어머니, 가정의 순서이나 부모의 빈도가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 연계 주제 유목은 학교 연계, 취학직 교육 연계, 대중매체 연계등으로 1920-1930년대에는 자녀의 학교 입학울 권장하는 기사 내용이 중심이고 이후에는 입시지도, 중등교육에 관한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취학전 교육이나 대중매체(T.V., 라디오 잡지, 만화)등을 다루고 있는 바, 이러한 영역의 행위 주체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독자적인 역할이 아닌 주로 부모에 의한 공동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⑥ 일반 주제 유목

일반 유목의 행위 주체는 분석된 147건중에서 부모가 67건(45.6%)으로 가장 많고, 어머니가 36건(24.4%), 가정이 17건(11.6%), 부형과 아버지가 각각 4건(2.7%), 2건(1.4%)이다. 시기별로 보면 1920-1930년대에는 부모와 어머니가 비슷하게 나타나나 1960-1970년대에는 부모가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일반 주제 유목에 관한 기사는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아동에 관한 기사인데 주로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에 관한 기사로는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이양해 버림으로 인해 부권이 약화된 현실을 지적한 기사가 있다. 이와 더불어 취업으로 인한 모성 역할 문제가 기사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1960-1970년대에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 주제유목 기사도 어머니를 행위 주체로 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 행위 주체로

삼고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후기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즉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역할의 부각이 아니라 부모역할의 확대와 상대적으로 어머니 역할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한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은 가족내의 역할 특히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였다. 하나는 아버지 역할이란 어머니 역할과는 다른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라는 것(유 영주,1984)과 둘째는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담당했던 아동 양육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며 性에 의한 양육 역할의 구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아버지 역할의 변화 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사회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1920년대에서 1970년대에까지의 동아 조선 일보에 나타난 아동 양육 관련 기사의 행위 주체를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아동 양육 역할 수행은 어머니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산업화 이전 시기인 1920- 1930년대에, 또한 보육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로 다루어지는 것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훈육, 상담, 사회연계, 일반 영역에서는 어머니보다는 부모가 더 많은 빈도로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로 언급되고 있었다.

아버지를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1920년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로 지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은 산업화 이전이나 이후의 시기에 아동 양육의 주체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부모는 아동양육의 주체로서 산업화이후인 1960-1970년대에는 훈육, 상담, 사회 연계,일반 주제 유목에서 어머니를 앞질러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性的인 관점에서의 아버지 혹

은 어머니가 아니라 성적으로 특정화되지 않은 (Gender-nonspecific) 부모 역할로서 개념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부모 역할의 개념화에는 그 내용으로 어머니 역할을 주로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반면에 이러한 어머니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Arkinson & Blackwelder, 1993).

이 부모역할에는 점차로 훈육, 교육, 상담뿐만 아니라 보육(Nurture)의 영역도 점차 편입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부모 역할이 어머니 역할보다 양육 행위의 주체로 적게 언급된 영역은 보육 영역이었으나 보육 영역의 시기별 경향으로 볼 때, 후기로 갈수록 어머니보다는 부모가 행위의 주체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점차 부양자 역할보다는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 역할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과거의 도구적 역할만이 아니라 표현적 역할 또한 잘 수행하는 양성적인 아버지이다. 양성적인 아버지는 성 역할 정형화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에 상관없이 흥미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보다 양육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동 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와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Cordell, 1980 : 유 회정(1995)에서 재인용). Lamb(1987)은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어머니 못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를 능동적이고 양육적이며 돌보는 부모로서 동일시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또한 과거의 표현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취업과 같은 사회참여를 통해서 부양자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양성적인 부모들은 아동양육과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등하게 담당하며 전통적인 부부들보다 더욱 융통성이 있고 자기 존중심이 높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보고하였다(유 회정, 1995).

이 연구를 통해서 모성만을 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여성의 역할로만 한정시키는 전통적인 성 역할 이데올로기,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재

개념화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 부모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신문 기사에 나타난 문화적인 현상이다. 아마도 본 연구의 결과보다 아버지들은 부모 역할을 덜 수행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박 숙자, 1992; 유 회정, 1992).

왜냐하면 신문은 실생활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기능상 특징은 정보, 사상, 관념, 문화등 인식의 생산과 전파라는 측면을 지니므로(이 준우, 1987) 실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선도해 나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1920-30년대에 동아 조선일보가 민족의 실력 배양을 위한 계몽운동을 추진했던 것(유 재천, 1990)을 볼 때, 신문 기사가 실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다 실생활을 반영하는 대중적인 매체, 예를 들면 만화나 여성, 아동잡지등을 내용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실생활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로 더 보완되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 경자외 4인. 1966. 부모의 태도에 따른 자녀의 성격형성. 숙대 청과교육, 6.
- 2) 김 경동. 이 운죽.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3) 김 비란. 1985.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관련 요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 미영. 1985. 아버지의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 영주. 1993. 한국 아버지상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내용 분석, 영동전문대학 논문집 제 19호.
- 6) 김 옥엽. 1981.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7) 김 태련, 이 은화, 이 동원. 1972. 유아기 아동의 문화환경에 대한 기초연구(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논총 제 20집.
 - 8) 문 미옥. 1983.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 숙자. 1992. 첫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編,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10) 박 현채. 1985. 한국 자본주의 전개의 제 단계와 그 구조적 특성, 박 현채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한울.
 - 11) 방 은령. 1986.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아동학회지 7권 2호.
 - 12) 송 혜림. 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신 양재, 김 영주. 1993.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 양육에 관한 기사내용 분석(2)-1920년대부터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2호.
 - 14) 안 은자. 1983. 여학생을 통해 본 취업모가정에서의 아버지역할에 관한 일 연구-서울여자중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옥 선화. 1993. 가족의 역할, 한국 가족학회 편, 가족학, 하우.
 - 16) 위 영희. 1979. 아동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유 안진. 1992. 아동양육, 서울:문음사.
 - 18) 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19) 유 영주. 1984. 신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20) 유 재천. 1990. 한국 언론과 이데올로기, 서울:문학과 지성사.
 - 21) 유 희정. 1995. 부모자녀관계,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 사회, 경문사.
 - 22) 유 희정. 1992. 아동의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 춘천전문대학 논문집, 제 22집.
 - 23) 이 동원, 김 미숙 譯. 1987. 성의 사회학,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4) 이 옥자. 1983.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5) 이 은화, 이 경우. 1987. 한국 어머니의 유아사회성 교육,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6) 이 은화, 이 경우, 이 기숙. 1993. 한국 아버지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제 10집.
 - 27) 이 준우. 1987. 한국 신문의 문화적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84년까지의 조선, 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이 회숙. 1984.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의 상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이 회자, 정 영숙. 1980. 아버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권 2호.
 - 30) 조 복희. 1987. 유아발달과 지도, 서울:교문사.
 - 31) 조 복희, 신 화용. 1990.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교육과학사.
 - 32) 차 배근. 1991.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서울:세영사.
 - 33) 1992.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세영사.
 - 34) 한 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최 재석. 1982. 한국 가족 연구. 서울:일지사.
 - 36) Aries(1962). Centuries of childhood, N. Y. : Vintage.
 - 37) Artkinson & Blackwelder(1993). Fathering in the 20th century, J. of M. F. 55.
 - 38)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The Free Press of Glencoe.
 - 39) Berk, S. F. (1985). The gender factory: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households.

- NewYork:Plenum Press.
- 40) Brayfield, A. A. (1993). Juggling jobs and kids: The impact of employment schedules on father's caring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 41) Day, R. D. , & Mackey, W. C. (1986). The role image of the American father. *J.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
 - 42) Duvall, E. A. (1979).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 New York:J. B. Lippincott Company.
 - 43) Dubbert, J. L. (1979). *A man's place: Masculinity in trans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44) Ehrenreich, B. (1983). *The hearts of men*. New York:Anchor.
 - 45) Gilbert, L. A. & G. R. & Hansen(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 *J. of M. F. , 45*.
 - 46) Hunt, , V. R. (1979). A Brief History of women workers and harzard in the workplace, *Feminist Studies* 5.
 - 47) Kessen(1979). The American child and other cultural in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
 - 48) Lamb, M. E.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amge situational behavior*. Hillandale, NJ:Lawence Erlbaum.
 - 49) Lamb, M. E. (1987). *The Father' Role-Cross-Cultural Perspectiv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ublishers.
 - 50) LaRossa(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 51) Leuptow, L. B. (1980). Social structure, social change and parental influence in adolescent sex-role socialization:1964-1975. *J. of M. F. , 42*.
 - 52) Nye. , F. J. (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London:Sage publication.
 - 53) Preutt, K. D. (1987). *The nurturing father*. N. Y. :Warner Books.
 - 54) Robinson, B. E. , & Barret, R. L. (1986). *The developing father:Emersing roles in contemporary society*. N. Y. :Guilford Press.
 - 55) Rossi, A. S. (1984). Gender and paren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 56) U. S. Bureau of the Census(1991).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1986-87*.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70, No. 20). Washington, DC: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